

팝페라 테너 임형주  
예체능 영재 발굴 나서  
비영리재단 '아트원' 설립



팝페라 테너 임형주  
(22)가 비영리재단 '아트원(ArtOne)'을 설립하고 예체능 영재 발굴에 나선다.

2003년 '샐리 가든'(Sally Garden)으로 데뷔해 5년간 93만장의 음반을 판매한 임형주는 "5년간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며 "그간의 수입을 모두 모아 어린이 재단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험으로 비춰 볼 때 예술과 어학 교육은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크다. 어린 시절 미리 그집애내지 않으면 재능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재단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아트원은 1단계로 3월 아트원스쿨을 개원해 혁신적인 방식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임형주는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접해야 거부감 없이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외국어를 익히는데는 드라마 만한 게 없다. 표현력과 상상력, 창의력, 무대매너를 함께 발달시키기 위해 영어 연극을 무대에 올리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경실, 라디오 특별상금 태안에 기부



개그우먼 이경실이 SBS 라디오(103.5㎱) '이경실의 세상을 만나자' (오전 9시5분) 덕분에 받은 상금을 원유 유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에 기부한다.

이경실은 지난 2일 열린 2008 SBS 시무식에서 '이경실의 세상을 만나자'로 '2007 하반기 작품상 특별상'을 수상하며 금 56.25g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았다. 그는 수상 직후 "여러분의 사랑으로 받은 상은 좋은 일로 보답하는 것이 좋다"며 "황금열쇠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태안에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전남 법조인 신년 하례회



이태운 광주고법원장과 김관재 광주지법원장·안철호 광주고검장·신성규 광주지검장·국중돈 광주지방변호사회장 등 법조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2008년 법조 신년 하례회'가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열렸다.

## 광주대 문창과 신춘문예 또 대거 입상

### 광주일보 동화부문 김순아씨 등 7명 당선

2008년 신춘문예에서 광주대학교 문예 창작과 학생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4일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각 언론사에서 실시한 올해 신춘문예 공모에 재학생 및 졸업생 7명이 당선됐다. 당선자 중 2명은 50대를 넘긴 만학도였다.

'고슴도치 삶'으로 본사 신춘문예 동화부문에 당선된 김순아(여·35)씨는 "남들보다 늦게 학교에 입학했지만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어 좋았다"며 "문학이 좋아 모인 사람들이 뜻이 이룬 꿈들을 이뤄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벼운 산'으로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 시 부문에 당선된 이선애(여·53·대학원 재학)씨는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좋은 작품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며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밖에 이은실(여·30·필명 이은규)씨는 '추운 바람을 신으로 모신 자들의 경전(經典)'이란 작품으로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김영미(여·54·대학원 문예창작과 재학)씨는 '재개발 아파트'로 한국일보 신

춘문예 동시 부문에 각각 당선됐다.

또 '첫 번째 생일'을 쓴 백정희(여·33)와 '금발의 미녀'를 쓴 강순덕(여·50·필명 강남미)씨는 전남일보 신춘문예 소설과 동화 부문에, 임지형(여·38)씨는 '얼굴 시장'으로 무등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문에 각각 당선됐다.

한편 1996년 설립된 광주대 문예창작학과는 지난 2007년 신춘문예 4명, 문예지 7명, 문학상 3명 등 12명(2명은 중복)이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등 지금까지 80여 명의 신춘문예 당선자를 비롯해 모두 220명의 학생을 문단 등단자로 배출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내 집 앞 눈치우기가 이웃사랑

### ■ 나종욱 광주시 재해예방 담당

#### "제재보다는 시민 자발 참여가 중요"



"내 집 앞에 쌓여있는 눈을 치우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범시민 실천운동'의 실무를 맡고 있는 나종욱(53) 광주시 재해예방담당은 그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쌓인 눈이 대부분 녹아가는 3일에도 시민들에게 내 집 앞 눈을 치워 줄 것을 제삼 당부했다.

구암 29일부터 4일 동안 내린 폭설로 광주·전남에서 23억 4천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아프게 한 것은 낙상사고. 광주시 소방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15명의 시민들이 주택가 골목길과 인도에서 부상했다.

"시민들이 내 가족이 다니는 길이라 생각하고 집 앞의 눈을 치웠다면 적어도 주택가에서 만큼은 골질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속칭 눈 치우기 조례)가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재해 관리 업무를 담당한 그는 행정기관이 제설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눈치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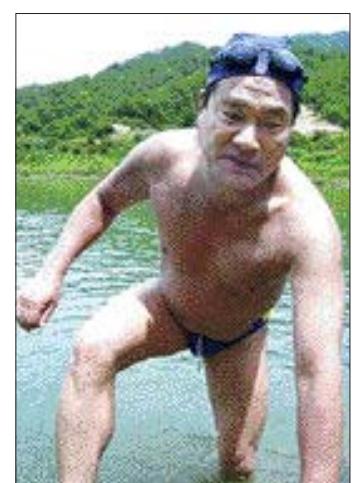
/운영기자 penfoot@

### 7월 '독도사랑 만들기' 도전

1970년대 최고 수영스타로 군림했던 "아시아 물개" 조오련(56·해남 출신)씨가 독도를 33차례 해엄치며 도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조오련씨는 "오는 7월 1일부터 30일 동안 바다를 해엄쳐 독도를 33차례 해엄치며 고 한다"고 3일 밝혔다.

1980년 8월 대한해협을 횡단한 조씨는 2년 뒤에는 도버해협 횡단을 하며 주위를 놀라게 했고, 20여 년이 지난 2004년에는 남방한계선



에서 여의도까지 한강 600리(240km)를 해엄치며 건재를 과시했다. 가장 최근인 2005년 여름에는 아들인 조성모, 조성웅과 함께 울릉도에 서 독도까지 해엄치며 바다에 끝없이 도전해왔다.

이번에 독도를 33차례 도는 행사는 마련한 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명제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다.

굳이 33차례를 도는 이유는 1919년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뜻을 기리자는 취지다. 조씨는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외친 33인의 뜻을 받드는 한편 나도 이 땅에 태어나 조국을 위해 무언가 남기고 싶어 독도 사랑 만들기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말만 '우리 땅'이라고 하지 대부분 국민이 독도의 크기도 잘 모른다.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해 독도를 편입시킨 일본이 계속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마당에 내가 독도를 33차례 돌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일본에도 확실히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 내방

### 인사

- ▲ 김동신씨(민주당 최고위원·광주 북갑 위원장)
- ▲ 고영길씨(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
- ▲ 이종범씨(〃 의회 사무처장)
- ▲ 김동현씨(〃 행정자원국장)
- ▲ 정인화씨(〃 정책기획관)
- ▲ 임근기씨(〃 갑사관)
- ▲ 김성수씨(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
- ▲ 박삼서씨(〃 사무국장)
- ▲ 송기근씨(한국 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장)
- ▲ 양기현씨(〃 관리처장)
- ▲ 김영일씨(〃 고객지원처장)
- ▲ 고재익씨(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 문용철씨(〃 홍보과장)



### 이스턴 쥬얼리호텔 '사랑의 쌀' 기증



여수시 이스턴 쥬얼리 호텔 김진홍(원쪽) 대표이사는 3일 3천만원 상당의 백미 1천500포대(10kg/포)를 독거노인과 지역아동센터에 전해달라며 오현섭 여수시 장에게 기탁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광주·전남병무청 대학생 흉보원 교육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손종해)은 3일 오전 청장실에서 지역 대학생 5명으로 구성된 '2008년도 대학생 병무홍보요원'에 대한 활동 교육을 실시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 KT전남본부 'IT 서포터즈' 출범식



KT전남본부(본부장 송기유)는 3일 오전 본부 회의실에서 IT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IT자식 나눔 봉사활동을 펼칠 '2008 IT 서포터즈' 출범식을 개최했다.

### 여수 공무원 '희망 나눔' 성금 전달



여수시 공무원 1천600여명이 '희망 2008 나눔 캠페인'에서 1천400여만원을 모았다. 정해군(오른쪽) 여수부 시장이 3일 KBC 동부방송을 방문, 김원진 시장에게 성금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족

▲ 서득주(대한화재 부사장)씨 장녀 소연양=5일(토) 오후 6시 그랜드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 조귀환(조광건설 대표)씨 장남 방훈군 최상오씨 장녀 은진양=5일(토)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 박광해(인터넷 전남뉴스 대표)씨 장남 진성(감사원)군 정태현씨 장녀 민이(서울 구청증 교사)양=5일(토) 낮 12시30분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 알림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

답.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국번 없이 1331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권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363-2240

▲ 호남해바리기 이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

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2-8877

▲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 동창·동문회

▲ 광주시대부중 제4회 동창모임(회장 전성수)=4일(금) 오후 6시 맛깔점. 011-646-2668

▲ 북성중 제4 동창회(회장 정석종) 월례회의=4일(금) 낮 12시 신도불이. 368-2323

▲ 목포고 제5 동창회(회장 유영명) 월례회의=5일(토) 오후 6시 금강산식당. 224-0808

▲ 승원고 총동문회(회장 정영환) 월례회의=7일(월) 오후 7시 녹차 맛집 오리. 011-212-2900

▲ 연양김씨 광주 종친회(회장 김남진) 신년하례식=4일(금) 오후 6시30분 명덕회관.

▲ 광산이씨 상서공파 필문회(회장 이태교) 월례회의=7일(월) 오후 6시30분 화랑궁식당. 018-616-5755

▲ 영광김씨 재광 종친회(회장 김

인구) 월례회=10일(목) 오후 6시 백운산회관

▲ 순흥안씨 부제학파 효길후 문 종 총회=11일(금) 낮 1시 낙지한마당. 016-602-2838

### 향우회

▲ 재광 곡성군 삼기면 향우회(회장 김채정)=6일(일) 오후 6시 두암동 조선의 땅.

###